

프로야구, '5월초 개막' 목표로 기지개

44경기 체제 유지위해 더블헤더·월요일 경기 불가피

돔구장 중립 PS 확정...개막일 오는 21일 이사회서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이 미뤄진 2020 KBO리그가 5월초 시작을 향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10개 구단이 무관중으로 연습경기를 진행한 뒤 특이사항이 없다면 내달 초 6개월여 장기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캄프양재타워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종료되는

19일 이후 확진자 추세 등을 고려해 21일 이사회에서 정규시즌 개막일을 확정하기로 했다. KBO는 여전히 5월초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예정된 144경기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단 도쿄올림픽이 내년 초 6개월여 장기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144경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KBO의 계획이다. 하지만 만약 시즌 중 코로나19로 변수가 생기면 리그 축소가 불가피하다. 최소 2주 간 리그가 멈

춰질 수 있고, 다수의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도 감수해야 한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5월 초 개막이 144경기를 치를 수 있는 마지막 노선"이라면서 "만약 그때 개막이 된다면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시즌이 축소된다면 일정에 여유가 생기니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간 가능성만 언급됐던 돔구

장 중립경기는 확정됐다. KBO리그는 한때 규모가 작은 지방 구장 연고 팀에 한해 한국시리즈를 중립 경기로 서울 잠실구장 등에서 시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경기를 끝으로 폐지됐다. 추운 날씨로 인해 11월 중순부터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각 구단들은 머리를 맞댔고 11월 15일 전후로 열리는 포스트시즌의 경우 국내 유일의 돔구장인 서울 고척 스타디움구장에서 중립경기로 치르기로 했다.

예를 들어 플레이오프 일정에 11월 15일이 포함되면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의 모든 일정을 고척에서 진행한다. 11월 15일이 일정에 들어간 시리즈, 그 이후 시리즈는 모두 고척에서 열리는 것이다. 현재 고척스카이돔은 키움 히어로즈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키움에 플레이오프 및 한국시리즈에 올라가도 고척 중립경기는 그대로 진행된다. 키움으로선 유리한 대목이다. 류대환 총장은 "10개 구단이 합의한 부분"이라며 "(어웨이 팀으로서 불리함은)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장 중요한 정규시즌 개막일은 오는 21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KBO "21일부터 시작되는 연습경기 10G는 야간경기로 오후 6시 진행"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부터 열리는 프로야구 팀 간 연습경기 일부의 시작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리그 개막을 앞두고 각 구단이 야간 경기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현재 각 팀들은 자체 청백전을 진행 중인데, 주로 낮 경기로 진행하고 있다. KB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살피

면서 21~27일 10개 구단이 무관중으로 연습경기를 가진 뒤 특이사항이 없다면 내달 초 정규리그를 개막한다는 구상이다. 연습경기는 팀 당 4경기씩 총 20경기가 열리며 근거리 원칙에 따라 숙박 없이 당일치기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KBO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19일)이 끝나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정규리그 개막일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자	구장	원정	출	시간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4.21(화)	창원	롯데	NC			야간 경기 적응력 향상
4.22(수)	수원	LG	KT			
4.23(목)	사직	삼성	롯데			
4.24(금)	사직	NC	롯데			
4.25(토)	잠실	KT	두산	14:00	18:00	
	고척	SK	키움			
	창원	KIA	NC			
4.27(월)	고척	LG	키움			
	문학	두산	SK			
	광주	NC	KIA			

OK저축은행, 센터 진상현 품었다...구단 첫 외부 FA 영입

연봉 2억5000만원 3년 계약...대한항공서 12시즌 활약



남자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이 취약 포지션으로 꼽히는 센터 자리를 보강했다. 대한항공에서 뛰었던 미들블로커 진상현(34)을 데려왔다. 이는 OK저축은행이

2013-14시즌 처음 프로배구 판에 입성한 뒤 첫 외부 FA 영입이다. OK저축은행은 16일 진상현과 연봉 2억5000만원에 3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발표했다.

진상현은 "적극적 영입의지를 보여준 석진욱 감독의 진정성에 이적을 결심했다"면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음시즌 구단의 '봄배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K저축은행은 일찌감치 센터와 레프트 자리를 보강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석진욱 감독은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를 원했고, 이번 FA 시장에서 진상현을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한양대를 졸업한 진상현은 2007년 1라운드 3순위로 대한항공에 입단해 12시즌 간 활약했다. 그는 198cm의 높이를 바탕으로 빠른 속공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2019-20 V리그 31경기(109세트)에 출전해 속공 3위(62.09%) 블로킹 9위(0.385개) 등을 기록한 바 있다.

OK저축은행은 노련한 진상현이 팀 내 구심점 역할을 하며, 구단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진상현은 B등급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선수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 OK저축은행은 진상현 지난 시즌 연봉의 300%를 대한항공에 보상하면 된다. OK저축은행은 기존 손주형, 전진선 등 센터 자원에 진상현의 합류로 중앙의 두꺼움을 더할 전망이다. 곧 다가올 박원빈 등의 군입대 공백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석진욱 감독은 "구단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높이와 경험을 겸비한 베테랑 선수를 영입 할 수 있었다"면서 "진상현이 마형으로 서 구단의 재도약을 이끌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OK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휴식기를 가진 뒤 다음 시즌을 위한 훈련을 전개한다는 계획이 다.



KIA 이민우, 자체 연습경기 '6이닝 5K 무실점'

KIA 타이거즈의 우완 이민우(27)가 팀 내 평가전에서 호투를 펼치며 올 시즌 선발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민우는 15일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자체 연습경기에서 화이트 팀 선발로 나와 6이닝 3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민우의 호투 속에 화이트 팀은 레드 팀을 5-0으로 눌렀다. 이민우는 2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이어갔다. 3회 1사 이후 최정민에게 좌중월 3루타를 내줬지만 이민우를 삼진, 홍중표를 2루 땅볼로

돌려세우고 위기에서 벗어났다. 4회에도 선두타자 박정우에게 유격수 안타를 허용했지만 후속타자들을 침착하게 잡아냈다. 이민우는 6회에도 선두타자 홍종표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수비들의 도움에 힘입어 무실점 피칭을 마쳤다. 중견수 플레이 때 3루로 뛰던 주자가 정확한 송구에 걸려 아웃됐다. 화이트 팀은 1-0으로 앞서던 6회말 최형우, 이우성, 오선우의 연속 안타 등을 묶어 4-0으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